

# 낮선 서술자, 친숙한 방랑자

소설가 올라 토카르추크에 의하면 서술자는 ‘진화를 통해서도 대체되지 않는 아주 오래된 조직 같은 것’이다.<sup>1</sup>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는 ‘이것’은 공동체의 경험과 상상력을 리드미컬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으로 구현하게끔 한다. «조상의 지혜»에서 소개되는 유예림의 신작은 작가 안에 내재한 내레이터의 목소리, 변화무쌍한 서술자의 이야기를 담고있다. 하지만 그가 유화로 촘촘하게 그려내거나 점토로 빚어낸 낮선 서사는 뚜렷한 의미나 기승전결이 결여된 채 분절된 장면들로 존재한다. 크고 작은 화면을 채우는 배경은 드넓은 휴게소 주차장, 어느 기차역, 계란관이 즐비한 대형 슈퍼마켓, 유럽의 한적한 주택가처럼 보이는 장소로, 특정할 순 없지만 어디선가 한 번쯤 본 듯한 곳이다. 거대한 체구와는 대조적으로 오밀조밀한 치아와 푸른 눈을 가진 인물들의 모습은 또 어떤가? 손목에 찬 시계를 고쳐 보고,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긴 머리칼을 휘날리며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구들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친숙하다. 그들은 작가가 사실적인 표현법과 허구로 치밀하게 구축한 설정에 마치 방랑자처럼 이곳저곳 등장하며,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전시장에서 교차하고 충돌하는 낮센과 친숙함은 일상에서 작가가 예민하게 감각한 과거, 즉 죽음과 맞닿아 있다. 그는 감각하기 위해 우리가 머무는 장소와 그 표면에 축적된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한다. 예컨대 커다란 건물의 외벽과 “그것을 세운 인부들의 노동, 그것이 위치하는 지역의 일조량/강수량과 같은 기상 상황, 그곳을 지나치거나 드나드는 수많은 이들의 서두름과 무관심, 각질과 먼지가 축적되어 있는”<sup>2</sup> 표면에 대해서 말이다. 평범한 일상의 장소가 작가에게는 이렇듯 자신이 경험해본 적 없는 생소한 과거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는 곳으로 작동한다. 그는 자신이 결코 알 수 없는 어떤 순간,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날씨의 죽음을—그리고 이 죽음이 스며든 모든 표면을—그리움이라는 감정을 통해 접속하고 이미지화한다. 전시 제목을 딴 <조상의 지혜>는 아스팔트 지면 아래에 놓인 노인의 시체, 그 위를 배회하는 영혼, 그리고 두 반려견과 늘 그렇다는 듯이 산책하는 인물의 관계도를 통해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전시와 작품 모두 ‘조상’이나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의 ‘지혜’와 무관하다. 여기서 조상은 켜켜이 쌓인 시간을 중립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일 뿐이다. 지금까지 유예림의 회화가 줄곧 문장 혹은 문장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내러티브를 이미지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번 전시에 포함된 19점의 작업은 작가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그리고 그 시간이 묻어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향수, 즉 허구적 그리움을 이미지로 재현하는

1

올라 토카르추크, 최성은 옮김, 『다정한 서술자』 (서울: 민음사, 2022), pp. 420-421.

2

미출간 작가 노트.

방식을 따른다. 전작들과 대조되는 차이점은 회화의 물성에서도 발견된다. 작가는 이전과 같이 나무 패널이 가진 특유의 흡수성이나 텅텅한 색채감을 활용해 그림을 완성하는 대신, 캔버스 위를 빈틈없이 채워 매끄러움과 평면성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캔버스라는 지지체 위에 안착한 이미지는 그 앞을 서성이며 작가가 보낸 물리적인 시간과 몸짓, 반복되는 세밀한 붓질이 누적되어 완성된 표면이다. 이렇게 시간이 쌓아 올린 표면이 풍기는 분위기는 일종의 향수와 상실감, 모호함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모호함은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비껴나간 시선을 통해서 증폭된다. 그들의 시선은 줄곧 어딘가를 향하지만, 그 대상이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선은 펄프 재질의 12구 계란판을 바라보는 인물의 눈길을 따라가다 블라인드가 드리워진 창밖을 향하기도 하고, 배낭을 맨 채 기차역을 서성이는 인물과 함께 화면 밖 먼 곳에 머무르다가도 휘몰아치는 눈바람을 이겨내며 걸음을 여미는 인물의 푸른 시선에 잠시 내려앉게 된다. <아기는 가구들이 완벽히 갖추어진 방에서 약간 배가 고프는 채로 태어났다> 속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인물은 실금이 간 계란을 뚫어져라 응시할 뿐, 유추해 볼 수 있는 대화나 소통은 없다. 그렇다고 작품의 제목이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문장과 이미지가 맺는 상대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낸다. 대표적으로 <하얗고 딱딱한 것>은 한 작업에서는 6구 계란판에 담겨있는 흰 계란을 지칭하지만, 또 다른 작업에서는 마치 개의 것처럼 보이는 두개골을 가리킨다. 반면 발의 골격을 그린 그림은 ‘당신의 빛나는 뼈’로 묘사된다. 짙은 어둠 사이로 진눈깨비가 내리는 추운 겨울의 바깥 풍경을 격자 형태의 창 너머로 바라보며 오른쪽 팔목에 찬 시계를 만지작거리는 인물을 포착한 <어떻게 지내요>의 영문 제목은 흥미롭게도 동일한 의미를 일본어로 번역한 후 로마자로 표기한 ‘Ogenki desu ka’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가가 문장의 의미 보다는 어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유예림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모호함은 곧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교하게 구축된 이미지는 또 다른 상황 혹은 문장에서 재배치되고 교체되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의 회화 작업이 정지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사건 가능성을 내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마주치는 깨진 자동차 유리창, 요리사의 칼질, 이웃집 앞마당의 모습에서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고 감각하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할 수 있음을 «조상의 지혜» 속 작품은 일깨워준다.

임수영 큐레이터  
독립 기획자